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역량의 매개효과*

김동일** (서울대학교) · 임기훈*** (University of Iowa)

정건**** · 박준영*****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의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이 다문화 역량을 매개하여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으로부터 사전, 사후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에 모두 응답한 총 41개국 75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 활동 참여 수준과 세계시민의식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 인식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둘째, 민감도 분석 결과 직접효과는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는 누락된 교란변수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국제 청소년 교류, 토론 활동, 세계시민의식, 다문화 역량

I. 서론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SNS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가 전 지구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로 인해 SNS의 주된 이용자층 중 하나인 청소년 또한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실제, 청소년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타 문화에 대한 혐오 표현에 노출되고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한 외, 2020). 이처럼 온라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활동 범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도 나타나면서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윤주, 2016).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3A2A02103411)

** 제1저자, 교육학과 교수 겸 교육연구소 연구원, dikimedu@snu.ac.kr

*** 공동저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gihun-im@uiowa.edu

**** 공동저자, 교육학과 석사과정, joyguni@snu.ac.kr

***** 교신저자, 교육학과 박사후연구원, jyprk@snu.ac.kr

국제화 관련 교육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으로 다문화 역량과 세계시민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OECD(2018)의 분류 방식에 근거한 PISA 2018 조사에서도 국제화 역량의 4가지 차원 중 태도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다문화 역량과 세계시민의식 개념을 활용하였다(홍수진, 김천홍, 2017). 먼저, 다문화 역량은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으로(Trede & Hill, 2012),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소통 기술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Yashima, 2010; McRae & Ramji, 2011). 또한, 서로 다른 문화를 인지하고 다른 사회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강인에 외, 2011; 변정현, 2011).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에 대한 지식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지식을 뜻한다(Dower, 2002). 또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의식과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지은림, 선평식, 2007). Reysen과 Katzarska-Miller(2013)는 세계시민의식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다문화 공감, 다양성 존중, 사회정의, 지속가능한 환경, 다문화 지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제안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역량과 세계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연구에서는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증진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시도들도 이루어졌다(강인에 외, 2011; 변정현, 2011; 조남익, 김고은, 2014; Kim 외, 2022). 국제 청소년 교류 활동은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과 글로벌 역량 발달, 국제사회와의 우호 협력, 공동체 의식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선영, 조남익, 2017).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내용 및 주제, 목적, 추진 주체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조남익, 김고은, 2014). 이 중 국제 청소년 포럼에서 출발한 청소년 서밋 활동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서밋 참가자가 한데 모여 토론을 통해 권고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환류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양계민 외, 2022). 청소년 서밋은 2020년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비대면 교류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2022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오프라인 행사를 늘려나갔고, 2023년부터는 참가국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국제 교류 행사로 ‘글로벌 청소년 서밋’이 진행되었다.

청소년 서밋은 다른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달리 참가자 간 토론 활동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가진다(양계민 외, 2022). 토론 활동은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의 주된 교육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으며(Todd, 2007),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과 더불어 민주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Dillon, 1997).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의의가 후속 세대에게 협력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는 점(조남익, 김고은, 2014)을 고려할 때, 청소년 서밋의 토론 활동은 이러한 의의를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청소년 서밋과 같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토론 활동과 다문화 역량 및 세계시민의식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토론 활동과 다문화 역량 간의 정적 상관을 확인한 연구(Aydin & Cinkaya, 2018)와,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토론 중심의 교육이 다문화 역량을 유의하게 증진하였음을 나타낸 연구(염미경, 2012; 황윤아, 오영섭, 2024)들이 있었다. 세계시민의식의 경우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의 유의한 정적 변화를 확인한 연구(조

남익, 김고은, 2014; Kim 외, 2022)가 있었다. 또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는 다문화 역량이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다문화 역량은 자민족 중심적인 태도를 낮추고, 문화 간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oh, 2012; Ng, Van Dyne, & Ang 2009; Young, Haffeejee, & Corsun 2017). 다문화 역량이 높은 개인의 경우 개방성과 세계시민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의존성, 보편적 인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타문화 간 사회적 신뢰를 보였다(Andresen & Bergdolt, 2017). Daniel과 Sabbagh(2024)의 연구에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노출이 다문화 역량을 매개하여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국제 교류 활동으로서의 토론 활동이 다문화 역량과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국제 교류 활동의 토론 활동은 다문화 역량을 증진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 탐색하고 검증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과 다문화 역량 등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제공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토론 활동의 고유한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남익과 김고은(2014), 천정웅(2014)의 연구는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과 전반적인 효과성을 탐색하였지만, 프로그램 내 다양한 활동 유형별 구체적인 영향력은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조남익과 김고은(2014)은 교육 봉사, 노력 봉사, 문화 교류, 탐방으로 구성된 국제 교류 활동 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나, 이 중 토론 활동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연구 대상이 한국 학생들로 국한되거나 한·아세안 국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송민경(2014)은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국제 워크 캠프에 참여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김동일 외(2022)는 한·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또한, 조남익과 김고은(2014)의 연구에서는 대상이 국내 학생들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범문화적 차원에서 국제 교류 활동이 다문화 역량과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분석 방법이 사전-사후 점수 비교나 질적 접근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송민경(2014)과 Kim 외(2022)의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 점수의 차이를 비교했으나, 이를 통해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세계시민의식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김동일 외(2023)는 한·아세안 국제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인터뷰하여 심층적인 경험을 분석하였으나, 토론 활동이 참여자들의 세계시민의식 및 다문화 역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의 한계와 토론 활동의 효과를 고려할 때, 국제 교류 활동으로서 토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다문화 역량과 세계시민의식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문화 역량이 토론 활동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토론 활동이 다문화 역량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 40여 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서 토론 활동을 진행한 후, 참여자들의 토론 활동 참여 수준과 다문화 역량 및 세계시민의식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이 다문화 역량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매개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의 효과 검증을 위해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민감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어느 정도 강건하지도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한가?

둘째,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은 다문화 역량을 매개하여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유의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3년 7월 19일에서 26일까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개최한 ‘2023 글로벌 청소년 서밋(Global Youth Summit)’참가자들이다. 서밋 참가자는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4월 중 참가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 참가자의 경우 서밋 관련 사이트 및 대학생 관련 사이트를 통해 모집 공고가 진행되었고, 외국 참가자의 경우 교류 체결국 대사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추천받았다. 선발 기준으로는 ① 모든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 국적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유학생이어야 하며, ② 모든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하고, ③ 모든 참가자는 사전 과제 수행 및 지정된 시간에 웹 세미나 참여에 대한 서약서에 따라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충분한 작문 능력을 보여야 하였다. 선발 과정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온라인 대면 인터뷰, TOEFL/TOEIC 점수 결과, 참가 의향서에 대한 서면 э세이가 포함되었다. 최종 선발 후, 선발된 모든 참가자는 국적과 모국어에 관계없이 영어 실력이 능숙하였다.

전체 참가자 수는 총 47개국 127명이다. 서밋 참가자에게 서밋 개최 전후로 각 1회씩 온라인 설문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그 결과 사전 평가 설문에는 105명이, 사후 평가 설문에는 97명이 응답하였다. 이 중 사전·사후 평가에 공통으로 참여한 참가자 75명(총 41개국)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응답자의 국적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참가자의 국가별 비율 분석 결과, 대한민국 출신 참가자가 9명(1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팔, 헝가리, 필리핀, 폴란드, 라오스가 각 3명(4.0%), 그 외 대부분의 국가가 각 2명(2.7%) 또는 1명(1.3%)씩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국가별 참여자 수

국가	참가자 수	국가	참가자 수	국가	참가자 수
알제리	1(1.3%)	칠레	2(2.7%)	헝가리	3(4.0%)
방글라데시	2(2.7%)	코스타리카	1(1.3%)	인도	1(1.3%)
브루나이	2(2.7%)	체코	2(2.7%)	인도네시아	1(1.3%)
불가리아	2(2.7%)	이집트	2(2.7%)	이스라엘	2(2.7%)
캄보디아	2(2.7%)	조지아	1(1.3%)	일본	1(1.3%)
카메룬	2(2.7%)	독일	1(1.3%)	케냐	1(1.3%)
캐나다	1(1.3%)	가나	2(2.7%)	라오스	3(4.0%)
리투아니아	2(2.7%)	파푸아뉴기니	1(1.3%)	태국	1(1.3%)
말레이시아	2(2.7%)	필리핀	3(4.0%)	튀니지	2(2.7%)
몽골	1(1.3%)	폴란드	3(4.0%)	튀르키예	1(1.3%)
미얀마	2(2.7%)	싱가폴	1(1.3%)	미국	2(2.7%)
네팔	3(4.0%)	슬로바키아	1(1.3%)	우즈베키스탄	1(1.3%)
나이지리아	1(1.3%)	대한민국	9(12.0%)	베트남	1(1.3%)
파키스탄	2(2.7%)	스리랑카	1(1.3%)	합계	7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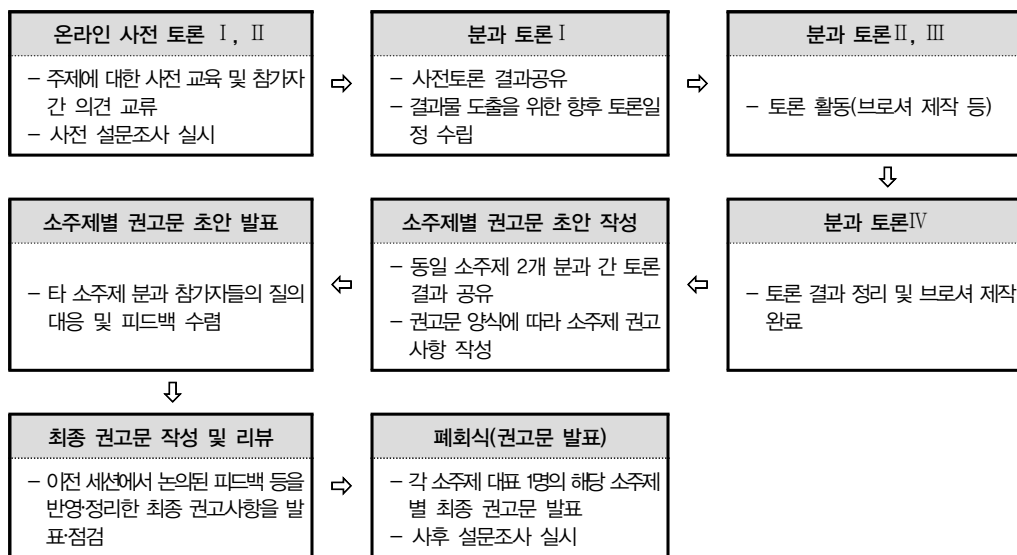
2. 국제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 구성 및 내용

국제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청소년들의 하모니(Harmony of Global Youths Towards a Sustainable Future)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보건, 기술, 교육 사회, 문화, 환경 영역별 5개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소주제는 ① 위드 코로나 사회의 공중 보건 문제와 지속가능한 건강권(Guarantee of the Sustainable Right to Health: Public Health Issues during the With-COVID-19 Era) ② 디지털 사회 전환 속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해소 방안: 형평성 기반 학습권 보장(Educational Disparity in the Digital Society Transition and its Solution: Guarantee of the Right to Learning Based on Equity) ③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소년 사회 참여(Youth Particip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④ 문화다양성 존중과 가치 확산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The Role of Youth in Respecting and Spreading Cultural Diversity and Value) 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 속 실천과 그린에너지 활용(Practice for Daily Life and The Use of Green Energy for Overcoming the Climate Crisis)으로 구성되었다. 또 각 소주제는 2개의 하위 주제로 나뉘어 있어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각 하위 주제를 중심으로 총 10개의 토론 분과로 구성하였다. 각 토론 분과는 10~12명의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1명의 촉진자가 배치되었다. 촉진자는 국제 청소년 서밋 참가 경험이 있거나 국내외 국제 행사에 참여 경험이 있고,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을 조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학 분야 석사과정 2명, 박사과정 4명, 박사 2명, 교수 2명으로 촉진자를 선발하였다.

토론 주제들은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문제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되

었다. 토론 활동은 2회의 사전 토론과 4회의 분과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토론 활동은 2시간 씩 진행되었다. 사전 토론은 서밋 참가 전 비대면 온라인으로 ZOOM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대면으로 청소년 서밋을 개최한 이후에는 총 4회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은 각 분과별 하위 주제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은 각 주제에 관한 자기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다른 사람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를 표현하는 등의 토론 활동을 통해 국제적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었다.

토론 이후 각 분과에서는 주제별 문제에 대한 권고문을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브로슈어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활동은 온라인 사전 토론(사전 설문조사 실시) → 주제에 대한 사전 과제 → 조별 분과 토론 → 소주제별 권고문 초안 작성 및 발표 → 최종 권고문 작성 및 리뷰 → 폐회식(권고문 발표 및 사후 설문조사 실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세부 토론 활동 진행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토론 활동 진행과정

3. 자료수집

서밋 참여 전후 참가자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2023 글로벌 청소년 서밋’의 주제 및 사업 목적을 반영한 내용으로 사전·사후 평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 참여 수준과 다문화 역량, 세계시민의식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으로 토론 활동 참여 수준, 다문화 역량, 세계시민의식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기본적인 정보인 성별, 생년월일, 국적, 학년, 자원봉사 경험, 해외 방문 및 거주 경험을 묻는 7문항과 서밋에 대한

이해 10문항, 다문화 역량 15문항, 세계시민의식 12문항, 주최국(한국) 이미지 5문항, 토론 활동 참여 수준 20문항, 기타 의견을 수집하는 1문항으로, 총 7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는 Google 온라인 설문을 활용해 제작되었다. 사전 평가는 서밋의 첫 번째 사전 분과 토론이 끝난 직후인 2023년 7월 6일부터 배포 및 회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사전 평가에 참여한 참가자는 2023년 7월 17일에 제출하였다. 사전 설문지는 총 105부가 수합되었다. 사후 평가는 행사가 종료된 이후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97부 회수되었다. 그중 사전, 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을 한 75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측정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성별, 연령, 해외 봉사 경험, 해외여행 경험, 해외 거주 경험이다. 성별은 이분형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연령은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해외 봉사 경험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0점은 전혀 없다 ~ 3점은 한 달 마다 자주),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 해외 봉사 경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해외여행 경험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0점은 전혀 없다 ~ 3점은 5회 이상), 점수가 높을수록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거주 경험은 이분형 문항으로 있다 또는 없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2) 다문화 역량

다문화 역량은 단축형 다문화 감수성 척도(the short form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15)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감수성 척도는 Chen과 Starosta(2000)가 개발한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다문화 감수성 척도를 Wan과 Zhou(2016)가 축약하여 15개 문항으로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문화 간 상호작용 참여, 문화적 차이 존중, 문화 간 상호작용 자신감, 문화 간 상호작용 즐거움, 문화 간 상호작용 친숙성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78이었다.

3)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은 Reysen, Katzarska, Miller(2013)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세계시민의식 척도를 활용하였다. 세계시민의식은 다문화 공감, 다양성 존중, 사회정의, 지속가능한 환경, 다문화 지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이라는 총 6개 하위 요인과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8이었다.

4) 토론 활동 참여 수준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은 Walker와 Angelo(1998)가 그룹 활동에 대해 평가를 위해 개발하고 타당화한 집단 노력 수업 평가 기법(Collective Effort Classroom Assessment Technique, CECAT) 척도를 활용하였다. CECAT은 함께 작업하는 학생 그룹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프로젝트 그룹, 문제 해결 팀 등 기타 협업 활동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토론 활동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기여도, 응집력 등을 평가하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과 소속한 집단 토론 활동에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3이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R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분석을 실시하기 전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의 자료는 삭제하였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분석과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이 다문화 역량을 매개하여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mediation 패키지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1,000번 반복 시행하여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인과적 가정의 엄밀성을 위해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지만, 누락된 교란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누락된 교란변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매개효과 추정치를 탐색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 분석 결과가 얼마나 강건한지를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mediation 패키지의 medsens 함수는 매개변수 회귀모형과 결과변수 회귀모형의 오차항 간 상관을 모수로 활용하여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다(Imai et al., 2010; Tingley et al., 2014). 즉, 교란변수로 인해 연구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되는 오차항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때, 연구자는 교란변수로 인한 오차항 간 상관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김용남, 인효연, 2024).

Ⅲ. 연구 결과

1.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상관분석

토론 활동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은 여성이 48명(64.0%)으로 남성보다 더 많았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2.2세였다. 해외 봉사 경험의 빈도는 '1년마다 가끔'으로 응답한 참여자가 40명(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여행 경험은 '5회 이상'이 25명(33.3%)

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거주 경험에 ‘없다’로 응답한 참여자가 45명(60%)으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참여자보다 더 많았다. 세부적인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참여자 일반적 특성

구 분		참여자 수(%)
성별	남 성	27(36.0%)
	여 성	48(64.0%)
	합 계	75(100%)
연령	평균(SD)	22.2(1.7)
해외 봉사 경험	전혀 없다	6(25.3%)
	거의 없다	10(13.3%)
	1년마다 가끔	40(8.0%)
	한 달마다 자주	19(53.3%)
	합계	75(100%)
해외여행 경험	1-2회	13(17.3%)
	3-4회	21(28.0%)
	5회 이상	25(33.3%)
	전혀 없음	16(21.3%)
	합계	75(100%)
해외 거주 경험	있다	30(40%)
	없다	45(60%)
	합계	75(100%)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해외여행 경험은 해외 거주 경험(.34) 및 다문화 역량(.28)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은 다문화 역량(.37), 세계시민의식(.49)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1	2	3	4	5	6	7	8
1. 연령	1.0							
2. 성별(남성)	.04	1.0						
3. 자원봉사 경험	.14	-.10	1.0					
4. 해외 여행 경험	-.05	.10	.02	1.0				
5. 해외 거주 경험	.21	.12	-.03	.34**	1.0			
6. 다문화 역량	.02	.13	-.08	.28*	.07	1.0		
7. 세계시민의식	-.14	-.08	.00	.10	-.04	.48***	1.0	
8. 토론 활동 참여 수준	.07	.04	-.08	-.04	.09	.37***	.49***	1.0
Mean	22.16	.36	1.96	1.73	.40	4.49	4.69	4.50
SD	1.70	.48	.85	1.14	.49	.34	.35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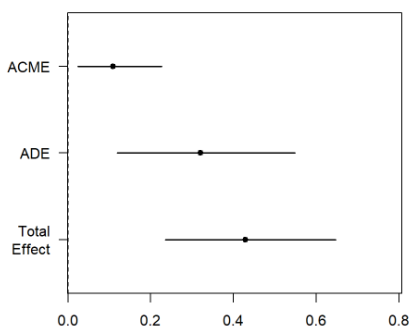
주. * $p < .05$, ** $p < .01$, *** $p < .001$

2. 매개효과 분석 결과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이 다문화 역량을 매개로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직접효과 추정치는 .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01$), 간접효과 추정치도 .11로 유의하였다($p < .001$).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1,000번 반복 시행한 결과 95%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변수	추정치	95% 신뢰구간		p
		하한값	상한값	
간접효과	.11	.02	.23	$< .01$
직접효과	.32	.11	.55	$< .001$
총효과	.43	.23	.65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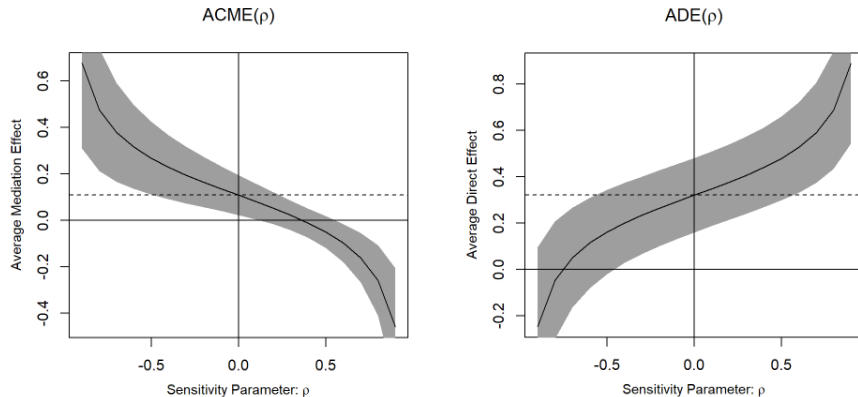
[그림 2] 매개효과 추정치 그래프

주. ACME = 간접효과, ADE = 직접효과, Total Effect = 총효과

3. 민감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인과적 가정의 엄밀성을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 분석 결과가 얼마나 강건한지를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그림에 제시하였다. 매개변수 회귀모형의 오차항과 결과변수 회귀모형의 오차항 간 상관은 X축에 p 로 표기되어 있다. ACME는 간접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감도 모수인 오차항 간 상관인 .2가 되는 지점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 ADE는 직접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차항 간 상관인 -.5가 되는 지점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직접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 오차항 간 상관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직접효과의 경우 누락된 교란변수를 고려한 경우에도 연구 결과가 강건한 것으로 판단되며, 간접효과의 경우에는 누락된 교란변수에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민감도 분석 결과 그래프

주. ACME = 간접효과, ADE = 직접효과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세계 41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이 다문화 역량을 매개로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2023년 7월 19일에서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7개국에서 온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127명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청소년들의 하모니’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보건, 기술, 교육 사회, 문화, 환경 영역별 5개 소주제에 대한 2회의 사전 토론과 4회의 분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 각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 참여가 다문화 역량을 매개로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룹의 경우 세계시민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 교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김신아, 2004; 김옥순, 2011). 조남익과 김고은(2014)의 연구에서도 국제 교류 활동 참여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높이고 세계시민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론 활동은 한 집단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이 필요한 활동으로 국제 교류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Hoegl & Gemuenden, 2001; 김명소, 한영석, 2010; 윤우제, 2007).

둘째, 국제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 참여가 다문화 역량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부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직접적으로 세계시민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그 과정에서 다문화 역량이 높아지고 세계시민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 교류 활동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도 증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윤철정 외, 2011).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노출이 다문화 역량을 매개하여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Daniel과 Sabbagh(202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국제 교류 활동 등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은 다문화 역량을 발달시키고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와 다르게 Daniel과 Sabbagh(202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역량이 다른 문화에 대한 노출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독립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소속한 그룹의 토론 활동이 어느 정도 참여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의 토론 활동 참여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Daniel과 Sabbagh(2024)의 연구에서는 다른 문화의 친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영어의 수준, 해외여행 및 거주 경험에 관한 질문들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독립변수의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노출의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미 Sparkman 외(2018, 2020)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른 문화에 대한 단순한 노출은 세계시민의식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Coulby, 2006; Sercu, 2006). 이와 관련하여 Trede 외(2013)는 국제 교류 활동에서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셋째, 매개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직접효과는 누락된 교란변수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연구 결과가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간접효과의 경우 누락된 교란변수에 의한 영향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다문화 역량을 매개하여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교란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국제 교류 활동에서 참여자들 간의 사적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Cordelli, 2015; Schaefer et al., 2011). 이러한 관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관없이 문화 간의 편견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Sousa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참여자 간의 관계의 질을 추가로 측정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세계 41개국의 청소년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참여자가 일부 국가 출신의 청소년들로 한정되어 있어 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고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41개국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의 확장성을 높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토론 중심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국제 교류 활동을 운영할 때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Coulby, 2006; Sercu, 2006; Trede et al., 2013). 즉, 단순히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문화의 청소년들과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토론 활동을 중심으로 참여자 간 접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비판적 사고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더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토론 중심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의의에 해당한다.

셋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에 관해 확인을 한 연구들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은 미비하였다. 위의 논의에서 언급하였듯이, Daniel과 Sabbagh(2024)가 다문화에 대한 노출이 다문화 지능을 매개하여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대상자 선정과 변수 측정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개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넷째, 매개효과 검증과 함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연구는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방법 중 하나이며, 이와 더불어 매개효과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용남, 양혜원, 2021; 김용남, 인효연,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엄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란변수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 인과매개효과에서 제안하고 있는 민감도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결과가 얼마나 강건한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토론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독립변수를 설정하여서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한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교란변수들을 통제하기는 하였지만,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국제 교류 활동에 참여하였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세계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간접효과 결과는 관찰하지 못한 교란변수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역량 이외 다른 변수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란변수(관계적 요인, 종교, 출신 국가, 국제적 이슈 관심도 등)를 측정하여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 등 인터뷰를 통한 심층적인 토론 과정을 탐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중 토론 활동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청소년 서밋은 토론 활동 이외 문화 체험,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한 활동의 특성들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토론 활동 이외 다른 국제 교류 활동(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의 영향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인애, 김현우, 황선하(2011). 구성주의 기반 경제체험교육을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변화: 한·일 고교생 교류캠프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교육논총*, 26(2), 1-26.
- 김동일, 신혜연, 이연재, 고혜정(2022).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퍼실리테이터 역할과 성공요인 탐색: 근거 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17(1), 1-57.
- 김동일, 신혜연, 이연재, 이경원(2023). 한-아세안 국제청소년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퍼실리테이터와 참가자의 인식 및 경험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8(1), 83-132.
- 김명소, 한영석(2010). 팀워크 역량의 구성요인 탐색 및 진단도구 개발: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29-153.
- 김신아(2004). 세계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환, 이유진, 조아미, 임성택(2020).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옥순(2011). 아동의 세계 시민의식 형성에 미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6, 8-28.
- 김용남, 양혜원(2021). 완전매개 결과의 타당성과 통제변수의 활용. *교육평가연구*, 34(4), 679-705.
- 김용남, 인효연(2024). 상담연구에서 매개분석의 엄밀성 제고: 인과매개분석의 소개. *상담학연구*, 25(1), 1-21.
- 박선영, 조남익(2017). 청소년 국제교류 심층 분석과 교류 다각화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정현(2011). 초등학교의 다문화 인식 변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사회과교육*, 50(4), 135-152.
- 송민경(2014). Global Citizenship(지구시민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2), 483-512.
- 양계민, 조영미, 박소영(2022). 포스트코로나시대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운영모델 개발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염미경(2012). 대학 다문화교육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이해 관련 교양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2(1), 211-233.
- 윤우제(2007). 개인의 팀워크 스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이민희, 박선영, 박숙경, 신인순(2011).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윤주(2016). 세계시민성 함양과 세계시민교육의 실천방안: 청소년 참여교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225-245.
- 이혜원, 이수정, 이영미, 김미지, 강신애, 김형렬, 박찬호, Jun Morohashi, Michael Nettles(2017). 글로벌 역량 교육 정책 및 실태 분석을 위한 국제 협동연구.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남익, 김고은(2014).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191-215.
- 지은림, 선광식(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115-134.
- 천정웅(2014). 청소년학 분야의 글로벌청소년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4), 59-81.

- 홍수진, 김천홍(2017). 글로벌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한 PISA 2018 평가 체제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17(1), 65-91.
- 황윤아, 오영섭(2024). 소집단 토의·토론 활동 중심 다문화 교양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42(1), 31-53.
- Andresen, M., & Bergdolt, F. (2017).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definitions of global mindset and cultural intelligence – merging two different research stream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8(1), 170-195.
- Aydin, H., & Cinkaya, M. (2018).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diversity (GCEDS): A measure of students' attitudes related to social studies program in higher education. *Journal for Multicultural Education*, 12(3), 221-236.
- Cordelli, C. (2015).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Problem of Friendship. *Political Studies*, 63(3), 679-695.
- Coulby, D. (2006). Inter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Intercultural Education*, 17(3), 245-257.
- Daniel, S., & Sabbagh, C. (2024). Intercultural exposure and global citizenship attitudes among affluent late adolescents: Cultural intelligence as mediator.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22(4), 745-762.
- Daniel, S., & Sabbagh, C. (2024). Intercultural exposure and global citizenship attitudes among affluent late adolescents: Cultural intelligence as mediator.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22(4), 745-762.
- Dillon, J. T. (1997). 토론학습의 이론과 실제(김정효 역). 서울: 교육과학사.
- Dower, N. (2002). Global citizenship: Yes or no. *Global Citizenship: A Critical Introduction*, 30-40.
- Goh, M. (2012). Teaching with cultural intelligence: Developing multiculturally educated and globally engaged citizens.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32(4), 395-415.
- Hoegl, M., & Gemuenden, H. G. (2001). Teamwork quality and the success of innovative projects: A theoretical concept and empirical evidence. *Organization Science*, 12(4), 435-449.
- Imai, K., Keele, L., & Tingley, D. (2010). A general approach to causal med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5(4), 309-334.
- Kim, D., Shin, H. G., Lee, Y., Choi, S., & Lee, K. (2022). Examining global competences in ASEAN and Korean youths.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1(2), 1-19.
- McRae, N., & Ramji, K. (2011). Enhancing cultural intelligence through cooperative and work-integrated education. *International Handbook for Cooperative and Work-Integrated Education*, 347-353.
- Ng, K. Y., Van Dyne, L., & Ang, S. (2009). From experience to experiential learning: Cultural intelligence as a learning capability for global leader development.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8(4), 511-526.
- OECD(2018). *PISA 2018 global competence framework*. Paris: OECD publishing.
- Reysen, S., & Katzarska-Miller, I. (2013). A model of global citizenship: Antecedents and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5), 858-870.
- Schaefer, D. R., Simpkins, S. D., Vest, A. E., & Price, C. D. (2011). The contribu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to adolescent friendships: New insight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7(4), 1141-1152.
- Sercu, L. (2006). The foreign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teacher: The acquisition of a new

- professional identity. *Intercultural Education*, 17(1), 55-72.
- Sousa, C., Gonçalves, G., Santos, J., & Orgambidez-Ramos, A.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competencies and intercultural contact: Multicultural personality and cultural intelligence. *Psicologia & Sociedade*, 31, e166867.
- Sparkman, D. J., & Eidelman, S. (2018). We are the “human family”: Multicultural experiences predict less prejudice and greater concern for human rights through identification with humanity. *Social Psychology*, 49(3), 135-153.
- Sparkman, D. J., & Hamer, K. (2020). Seeing the human in everyone: Multicultural experiences predict more positive intergroup attitudes and humanitarian helping through identification with all huma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79, 121-134.
- Tingley, D., Yamamoto, T., Hirose, K., Keele, L., & Imai, K. (2014). mediation: RPackage for causal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59(5).
- Todd, R. H. (2007). *Educating citizens for global awarenes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Trede, F., Bowles, W., & Bridges, D. (2013).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global citizenship through international experiences: Academics’ perceptions. *Intercultural Education*, 24(5), 442-455.
- Trede, F., & Hill, B. (2012).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Communicating in the health sciences* (pp. 195-205). Oxford University Press.
- Yashima, T. (2010).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volunteer work experiences on intercultural competence of Japanese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3), 268-282.
- Young, C. A., Haffeejee, B., & Corsun, D. L.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ocentrism and cultur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8, 31-41.
- Walker, C., & Angelo, T. (1998). A collective effort classroom assessment technique: Promoting high performance in student teams.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1998(75), 101-112.
- Wang, W., & Zhou, M. (2016). Validation of the short form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15).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5, 1-7.

Abstract

Impact of Discussion Activity in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grams on Global Citizenship: Mediating Role of Multicultural Competence

Kim, Dongil (Seoul National University)

Im, Gihun (University of Iowa)

Chung, Geon · Park, Jun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 of participation in discussion activities within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grams on global citizenship,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multicultural competence. We collected and analyzed data using responses from 75 participants across 41 countries who completed pre- and post-program surveys. Correlation analysis was followed by mediation analysis.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assess the robustness of the mediation effect.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ulticultural compete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ussion activity and global citizenship. Second, sensitivity analysis showed that the direct effect was robust, while the indirect effect was sensitive to omitted confounders. These findings provide insights into the role of discussion activities in fostering global citizenship. Final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international youth programs, discussion activity, global citizenship, multicultural competence